

송강호 끌고 박해일 밀고...극장가 활기 잇는다

송강호 칸 남우주연상 '브로커' 흥행 8월엔 항공 재난물 '비상선언' 공개 박해일의 '헤어질 결심' 29일 선보여 내달 나오는 '한산' 선 이순신 장군역

톱스타 송강호와 박해일이 극장가 활기를 이어가기 위해 새롭게 나선다.

한국영화 '범죄도시2'와 '브로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쥬라기 월드:도미니언' 등이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은 가운데 연중 성수기로 꼽히는 여름 시즌에서 활약할 두 사람의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송강호는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배우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안겨준 영화 '브로커'(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제작 영화사 집)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8일 개봉한 영화는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범죄도시2'와 함께 '쌍끌이' 흥행 중이다.

영화에서 송강호는 돈을 받고 버려진 아이들의 양부모를 찾아주는 자칭 '선의의 브로커' 역을 맡았다. 따뜻하고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도 큰돈을 벌기 위해 인신매매를 서슴지 않는 인물을 섬세하게 연기했다.

이어 제작비 250억 원의 대작 '비상선언'으로 8월 극장가를 다시 한번 정조준한다.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돼 일찌감치 외신의 호평을 이끈 영화는 테러로 무조건적 작륙을 선포



칸을 휩쓴 배우 송강호(왼쪽)와 박해일이 각각 영화 250억 원 이상의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 '비상선언'과 '한산: 용의 출현'으로 여름 성수기 극장가를 공략한다.



한 비행기를 두고 벌어지는 항공 재난물이다.

송강호는 '관상', '우아한 세계'에 이어 세 번째 호흡을 맞추는 한재림 감독의 연출로 항공 재난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형사팀장을 연기한다. 전도연·이병헌·김남길·박해준·임시완 등과 호흡했다.

박해일은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 수상

작인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으로 2019년 '나랏말싸미' 이후 3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다. 29일 개봉하는 영화에서 산에서 추락한 남자의 변사 사건을 맡은 형사로, 사망자의 아내 탕웨이와 내밀한 감성을 그린다.

7월 말에는 '한산: 용의 출현'으로 관객을 만난다. 2014년 1761만 관객의 국내 최고 흥행작 '명량'의 속편이다. 그는

최민식의 바통을 받아 이순신 장군을 연기한다.

30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한 대작 속에서 박해일은 '학익진' 전편 등 엄청난 규모의 해상 전투를 이끈다. 1편 연출자 김한민 감독이 다시 연출에 나섰다, 안성기·손현주·변요한·김성규 등이 함께 출연한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할리우드서 활약하는 한국인 스태프 많아져 뿌듯”

정정훈 촬영감독 인터뷰서 강조 '스타워즈'에 참여한 첫 한국 스태프 "K콘텐츠의 위상 온몸으로 실감"



정정훈 촬영감독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다. 자랑스럽다.”

박찬욱 감독의 '올드 보이'를 비롯해 한국영화의 대표적 스태프로 활약해온 정정훈 촬영감독의 말이다. 그는 최근 할리우드의 대표 SF시리즈 '스타워즈'의 6부작 스페이스 드라마로, 8일 디즈니+가 공개한 '오비완 케노비'를 촬영했다. 이만 맥그리거와 헤이든 크리스텐슨 등과 함께 현장에 나섰다. 9년 전 일찌감치 현지 러브콜에 화답한 정 촬영감독은 2013년 박찬욱 감독의 '스토커'를 시작으로 '그것', '좀비



정정훈 촬영감독이 참여한 영화 '스타워즈' 스페이스 드라마 '오비완 케노비' 공식 포스터. 사진제공 |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랜드: 더블 랩', '언차티드' 등에 참여해 왔다. 정 촬영감독은 '스타워즈'에 참여한 첫 한국인 스태프로 유명하다.

정 촬영감독은 14일 화상 인터뷰에서 “영화학교에 다닐 때부터 교과서처럼 공부했던 '스타워즈' 시리즈에 참여하는, 특이하고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됐다”며 “절저한 고증을 통해 '스타워즈' 특유의 설정을 살리면서도 기존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현을 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도는 2004년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작 '올드 보이' 등 전작의 성과에 대한 할리우드의 인정 덕분이다. '오비완 케노비'의 연출자 데보라 초우 감독은 “정 촬영감독의 대표작인 '올드 보이'를 참고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영화와 그를 비롯한 한국 스태프의 성과는 “현지에서 높인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온몸으로 실감”하게 한다. 그는 ““오징어게임”도 미국 스태프가 먼저 ‘꼭 봐야 하는 작품’이라 추천해 보게 됐다”면서 “그들 방탄소년단에 대한 반응도 나보다 현지 프로듀서들이 더 열

광적이다. 이제 한국 콘텐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 당연해졌다”고 덧붙였다.

사실 할리우드에서는 정 촬영감독 말로도 또 다른 한국 출신 스태프의 활약상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명가' 디즈니·픽사의 최고 히트작인 '토이스토리'의 스페이스로 15일 개봉하는 '버즈 라이트이어'에도 한국인 스태프가 참여했다. 마블스튜디오의 '이터널스'와 '상차와 텐 링즈의 전설'의 비주얼 이펙트를 담당했던 정성욱 레이아웃 아티스트,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영그리버드2'의 이재연 애니메이터이다.

두 사람은 “픽사에 한국인 스태프가 계속 늘고 있다. 애니메이터만 10명이다. 정말 자랑스럽다”면서 “엔딩크레딧까지 꼭 봐달라.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작품에 참여했는지 확인해 보고 함께 자랑스러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미 기자

연예뉴스 HOT 3

검찰 “성폭행 항고 기각” 김건모 혐의 벗었다

가수 김건모(54)가 주점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김건모에 대한 강간 혐의 항고 사건을 7일 기각했다. 김건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A씨는 “김건모가 2016년 서울 논현동 한 주점에서 성폭행했다”며 2019년 12월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한편 김건모는 피아니스트 장지연과 결혼한 지 3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유희열, 노래 '아주 사적인 밤' 유사성 사과

가수 유희열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곡인 '아주 사적인 밤'과 일본 유명 피아니스트 겸 영화 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의 '아쿠아'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유희열은 14일 SNS에 “두 곡이 유사하다는 제보가 있었고 검토 결과 곡의 메인 테마가 유사하다는 것에 동의하게 됐다. 긴 시간 영광 받고 존경한 뮤지션이기에 무의식중에 기억이 남아 있던 유사한 진행 방식을 곡으로 쓰게 됐다”라며 “불편함과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번 달 발매 예정이었던 해당 곡이 포함된 LP 발매 역시 연기했다. 류이치 사카모토 측과 연락해 저작권 관련 문제를 정리할 예정이다

김민하, 문화유산 캠페인 홍보대사 위촉

애플TV+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의 주역 김민하가 2022년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대사로 발탁됐다. 김민하는 14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해 “한국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퍼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하는 문화유산 방문코스 '산사의 길' 중 합천 해인사를 방문해 우리 선조들의 메시지를 되새기는 홍보 영상도 촬영했다. 해당 영상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도 송출될 예정이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홍자매' 손잡은 이재욱, 청춘스타 예약

tvN 토일드라마 '환혼' 18일 첫방 히트작 '호텔 델루나' 작가와 호흡 요술 부리는 술사들의 모험기 그려

신예 이재욱(24)이 tvN 새 토일드라마 '환혼'을 통해 새 청춘스타 자리를 노린다. '호텔 델루나' 등을 히트시킨 '홍자매'(홍정은·미란) 작가와 손잡고 “지도에도, 역사에도 없는” 판타지 세계를 화면에 펼쳐낸다. 판타지, 로맨스 등 인기 요소들을 결합시킨 이야기를 이끄는 시정자의 시선

을 끌어 모으겠다는 각오다.

18일 첫 방송하는 '환혼'은 가상세계 대호국을 배경으로 요술을 부리는 젊은 '술사'들의 모험을 담는다. 이재욱은 대호국의 명망 높은 집안 도련님 역을 맡는다. 무자비한 살수의 영혼이 깃든 몸종 정소민으로부터 술법들을 배우가면서 변화를 겪는 인물이다. 정소민과의 로맨스뿐 아니라 무협영화에서나 볼 법한 화려한 액션 연기도 펼친다.

'식사를 합시다' 시리즈를 연출한 박준화 PD도 “난생처음 보는 드라마”라고 놀



이재욱

라워할 정도로 낮은 장라다. 이재욱은 14일 열린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처음에는 잘 구현할 자신이 없었다”면서도 “박준화 PD의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한 마디에 용기를 냈다”고 돌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상상으로 표현해야

하는 어려움”도 기꺼이 이겨냈다. 현재 후반 작업 중인 드라마에 대해 그는 “컴퓨터 그래픽(CG) 등이 추가되면 더욱 다채로운 재미가 쫓겨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다양한 캐릭터들의 사연이 빠르게 교차하면서 느껴지는 속도감”에 주목해 달라고 말한다.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MBC ‘어쩌다 발견한 하루’ 등을 통해 쌓아올린 로맨스 주역의 경험도 없겠다고 다짐한다. 그는 “복합적인 장르를 통해 코믹함과 감동을 동시에 자아낼 것”이라며 “제자와 스승, 도련님과 몸종 등 다양한 관계에 놓인 정소민과는 ‘이유 있는 막장’ 케미스트리를 선보이겠다”며 웃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